

상무소각장 피해기금 30억 활용 길 열렸다

광주시, 피해주민 지원사업비 내년 예산 반영

기금 배분 비율·혜택 가구 등 해결 과제로

광주 상무소각장 인근 피해주민을 위한 기금 중 내년엔 최소 30억원을 활용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배분 비율 문제나 2001년 이후 추가로 지어진 아파트 주민들의 배분요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상무소각장 주변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기금 30억원을 반영했다. 10년 넘게

시 금고에서 낫잡만 자고 있던 기금을 처음으로 활용하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축조 및 주변 지역지원 법률에 따라 조성한 것으로 54억원 남짓이다. 시 출연금, 폐기물 반입 수수료,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주민 소득향상과 복리증진 등 공적인 곳에 사용해야 한다. 지난 2008년 23억을 비롯해 매년 적

게는 2억~3억원씩, 많게는 7억~8억원씩을 적립해왔다.

이 기금은 그러나 배분비율을 놓고 반경 300m 이내 주민과 그 외의 주민 간 이견이 커 10년 넘게 집행되지 못했다. 이는, 광주시와 서구청, 서구의회 등이 '돈'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중재조차 못한 채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2001년 이후에 들어선 상무지구 일부 아파트와 소각장 인접 유덕동 주민들도 기금 배분의 혜택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피해지역 결정 고시

를 하고 소각장 반경 1.3km, 상무지역 내 14개 아파트 단지, 9033가구로 확대했다.

상무소각장은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쓰레기)을 1일 320t 처리하는 시설로, 설치에 743억원이 투입됐다. 남구 양과동에 폐기물고형화시설(RDF)이 들어서게 되는 대로 2016년 말 폐쇄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 간 합의만 하면 조성한 기금을 처음으로 내놓을 계획이다"며 "아파트별로 사업계획서를 수립·제출하면 잘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청년 창업의 희망 '푸드트럭 1호점' 탄생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서

내일부터 영업 시작

광주지역 '푸드트럭 1호점'이 탄생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개혁 핵심 정책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인재 육성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음식판매차량(이하 '푸드트럭') 1호점이 오는 11일부터 시청 야외스케이트장에서 영업을 시작한다.

1호점 운영자로는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푸드트럭 운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 4일 김모(25)씨가 선정됐다.

그동안 시는 푸드트럭 영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열정과 도전,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난 11월

'푸드트럭 창업 지원 TF'를 구성하고 영업 가능 장소를 조사해 시청 야외스케이트장, 우치근린공원에 우선 추진해왔다.

특히, 영업장소 선정과 창업 지원 등 여러 부서로 나뉜 푸드트럭 관련 업무를 최단 기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고에서부터 영업 신고까지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최소화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한 이번 푸드트럭 1호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푸드트럭 영업을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고 창업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교통안전지수

17개 시도중 6년 연속 1위

광주시는 최근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4년 교통안전지수 평가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로 발생한 3주 이상 중상피해 사고를 대상으로 인구수,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 대비 사망자수 및 중사고 건수 등 8개 기초변수 값을 구하고, 이를 기초로 사고발생요인, 희생요인, 도로환경요인을 반영해 합산한 수치다.

광주시는 전국 평균 75.2점을 크게 웃도는 82.7점으로 최고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1점 상승한 것이다. 이같은 성과는 광주시가 시민단체, 교통유관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교통사고 줄이기 범시민 운동과 교통안전시설 확충,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랑의 김장김치 담그기

9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주민센터 앞 마당에서 우주초교 학생들과 새마을부녀회원들이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김치를 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도시철도 2호선 저심도 방식 유지 권고

'반쪽 자문회의'서 ... 향후 市 채택 여부 주목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연내 확정 앞서 열린 9일 자문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들은 기존 저심도 방식을 유지할 것을 권고해 향후 광주시의 건설방식 채택이 주목된다.

이날 열린 자문회의에서 문동주 정책자문관은 "(저심도를 제안한)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기연)과 제휴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듣는 게 좋아 보였는데 철기연이 찬반신세가 되고 불속 모노레일 등이 등장하더니 고가가 부활해 광주시가 떠들썩하더라"며 "불가피하다면 일부 구간을 지상으로 올리는 등 설계를 변경하면 되는데도 여러 안을 내놔서 의회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철기연 이안호 박사는 건설방식 대안을 모색하기로 한 광주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 박사는 "사업비 절감을 위한 146개 아이디어를 냈는데 경제성 용역 검토과정에서는 11건만 안전에 올랐다"며 "최고 전문가들이 저심도와 관련한 국책연구를 하면서 수년간 고민하고 새로운 콘셉트로 접근했는데도 연구원 제안이 안전에조차 못 올랐다"고 재검토를 요청했다.

최동호 광주대 교수도 "가급적 원안에 가깝게 가야한다"는 의견을 냈고, 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원 역시 "지상 교통을 활용하고 소음이나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저심도"라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문인 행정부시장은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제시된 방안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겠다"며 "다만 시민 안전을 불모로 하거나 법령에 어긋난 방식은 채택이 어려우니 신기술도 검증이 이뤄지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4명), 시민단체 관계자(3명), 언론인(3명), 일부 교수(2명) 등이 참석해 전체 자문위원(22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명만 참석해 사실상 '반쪽 회의'가 됐다.

광주시는 자문회의를 비롯한, 시민공청회 등의 의견수렴과 시의회, 시민사회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 방안을 확정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착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저심도 방식이 당초 예상보다 지하 깊이가 깊어지면서 사업비 증가와 함께 검증되지 않은 공법으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새롭게 제시한 5가지 방안은 ▲원안 중심형 ▲저심도·트램 조합형 ▲트램 확장형 ▲모노레일 중심형 ▲원안 고수 등이다.

시는 박람회 시장 재임 당시 지상 고가형에서, 강운태 시장 재임 당시 지하로 가는 저심도형으로 변경·확정된 방식을 운영한 시장의 민선 6기 들어 원점 재검토하면서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서구, 특정단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김태진 서구의원 주장 ... 5천만원짜리 용역 쪼개 수의계약 발주

광주 서구가 특정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사업비 5천여만원의 연구용역을 두 개로 쪼개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9일 광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서구는 사업비 3천700만원인 '조직관리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 2차 연구용역'을 올해 8월 사단법인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에 발주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2천만원을 초과한 이번 용역은 서구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의뢰해야 했지만 서구는 지난해 12월 사업비 1천350만원이 투입된 1차 용역과의 연속성을 위해 2차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도 수의계약을 통해 같은 곳으로 선정했다.

김태진 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구가 1·2차에 걸쳐 의뢰한 조직문화 진단 연구용역을 특

정 단체에 몰아준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서구가 규정상 인연이 있는 해당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사업비를 쪼개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용역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A교수는 서구가 발주하는 각종 기술·학술·연구용역의 타당성을 심의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동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B교

수는 1999년~2002년까지 A교수, 임우진 서구청장과 함께 한국거버넌스학회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으며 A교수와 B교수는 현재 서구의 지역발전자문위원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올해 1·2월에 실시한 조직문화 진단 결과,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연구용역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했다. 용역을 두 개로 쪼개 발주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A교수가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활동은 전무했다. 전문가 집단 인력에 한계가 있어 발생한 일일 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혼란기 시대 부동산 투자전략 무료 특강

시기가 변하면 투자전략도 변해야 한다. 혼란기시대에 부동산 투자에 정곡을 찌르는 알찬강의! 2016년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효과적인 투자전략을 찾을 수 있는 특별강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2016년 부동산 전망과 재-테크 성공 전략

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마케팅 전공)
-한국부동산정보연구소장, (사)대한부동산학회 광주, 전남지부장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KPC) 위촉교수, 공무원연수원 등 초청강의

2. 저금리·노령화 시대 안정적인 투자 비법(APT, 토지 등)

강사: 노승근 부동산전문강사
-헤럴드경제 엘리트 이코노미스트상 수상(2005)
-서울경제TV 부동산플러스 토지 전문가로 출연
-RTN 부동산경제TV(특집방송) 뉴트렌드 전원시대 전문 패널 출연
-실전 부동산 세미나 및 상담 최다기록

일시: 2015년 12월 11일(금) 14시~16시
장소: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2층 대강연장
후원: (주)다와옥션 선착순 200명 전화접수 마감 (부동산판매사이트 2개월 이용권 증정)

062-268-8949 010-5613-1808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아파트 특별분양

교육, 교통, 생활편의까지 광주를 더 크게 누립니다!

41㎡ 53㎡ 80㎡ 104㎡ 107㎡

소촌동 모아드림 1,2차 온세계 아파트

062 383-6400

선착순 동, 호수지정

풍부한 임대수요

우수한 교육환경

편리한 교통편

- KTX 5분거리
- 시청 10분거리
- 도로 교통망 최고
- 무안공항 원할
- 교육환경 우수 지역
어룡초, 중앙초, 정광중·고등학교, 광주여대, 호남대 근거리